

소명의식을 통해 바라본 한국사회 청년층의 직업관 회복 가능성 모색

농산업교육과 정 성 지

1. 서론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계층적인 인식을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기독교적 가치관인 직업 소명의식에서 찾아보는데 있다. 직업은 현대 사회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상훈, 2014). 직업은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며, 이와 함께 경제적 보상을 통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직업은 공동체 내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늠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위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대체로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인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으나 공동체 내에 구성원이 가지는 보편적 경험은 직업에 따라 사람을 인식하고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 직업은 사회 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역할의 분담과 노동의 분화를 의미할 뿐 그 자체에 대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지 않았다(유홍준, 김월화, 2002). 그러나 분화의 과정에서 스킬, 권력, 자본과 같은 재화에 대한 통제권의 차이가 권력으로 굳어지고, 이는 곧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특권을 형성하게 되면서 직업이라는 의미 안에 위계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Treiman, 1977). 따라서 개인이 어떤 직업을 갖는가는 사람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개인이 자리 잡은 사회적 평가까지 수반하게 되었다(양춘, 2000).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의 직업관 및 직업 선호 현상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 30년 전, 한국인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나 인식은 내재적 가치지향이 외재적 가치지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 한국인들은 임금 및 직업 안정성과 같은 외재적 가치지향을 더욱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홍, 1999; 임언, 2010). 특히 청년층은 직업을 수단으로 이해하는 외재적 직업 가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노동시장과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이상훈, 2014).

한국은 직업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 외에도 직업의 계층적 현상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굳어져 온 사회이다. 지난 2015년 청년 세대 사이에서 등장했던 ‘수저계급론’ 또는 ‘헬조선’ 등의 논의는 취업난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입장을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결부시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유형화된 형태로 제기되면서 직업의 불평등 담론은 더 확장되고 있다(황선재, 계봉오, 2018).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직업이 사회경제적 지위 및 계층적 구조를 함의하는바, 성경적 관점에서는 직업을 어떠한 의미로 접근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독교적 직업관에 관한 기존 연구는 기독교 윤리적 소명의식을 통해 한국사회의 청년층 고실업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한국 직업사회 문제를 다소 현상적 차원에서만 고찰하여 직업 위세와 직업의 계층적 구조적 차원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데(이상훈, 2014) 아쉬움이 있다. 또한,

직업 선택을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었으나(강경미, 2009), 한국 청년층이 직업을 탐색하고 변경하면서 경험하는 사회의 폐쇄적인 구조와 왜곡된 직업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아쉬움이 있다.

연구목적에 다가가기 위해, 우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직업관을 접근하기 위하여 중세 개혁자가 언급하는 ‘소명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경적 토대 위에 한국 사회의 청년층이 인식하는 직업관은 창조된 원형과는 동떨어진, 왜곡되고 타락된 것임을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일차적 소명을 통한 이차적 소명의 구속, 이차적 소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독교적 직업관을 통한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사회 청년실업과 직업 인식

지난 2000년 말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실업은 중요한 이슈로 지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통계청(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는 41만 명, 청년 실업률은 9.5%로, 전체실업률 3.8%보다 2배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는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첫 일자리를 잡고 생애 경력을 쌓아가는 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청년층은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의 비중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고학력 인력의 공급은 많은 편에 비해 이들을 위한 일자리 수요는 많지 않아 또다시 구직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주희진, 주효진, 2017). 이는 실망실업자, 구직 단념자와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청년층의 직업 문제는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 실업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청년 니트(NEET)족¹⁾은 20대 니트 비율이 높으며 실업자 니트는 2.9%에 불과하지만 비경험 니트는 15.6%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양상을 보인다. 즉 장기적인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거나 구직 단념자가 많은 것이다(채창균 외, 2015). 청년실업현상 가운데 니트족은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미래의 인적자본손실을 의미하기에 더욱 큰 사회문제와 갈등이 예상된다(최용환, 2015). 청년니트족은 실업자나 취업자에 비하여 정서적 불안정이 높고(8.09점), 잘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었으며(각각 3.51점, 3.60점) 중소기업에는 취업하고 싶어 하거나(13.8%)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은(44.5%) 특정 성향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채창균 외, 2015). 이는 자신에 대한 낮은 자아관 및 특정한 틀에 기초한 직업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업 인식이 동반되는 변화가 함께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같이 청년실업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가치관 측면에서 자아정체성의 이슈와 함께 일과 직업에 대한 직업관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상훈, 2014).

한국 사회 청년으로 확대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직업관 및 직업 선호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은 직업에 대하여 좁은 틀로 인식하고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하남, 김기현(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FGI를 통해 직업선호와 직업 선택의 변화를 살펴본 바 있다. 세대간 직업선호 변화 추세를 살펴본 결과 97년 경제위기 시작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직업 선택의 기준이었으며, 수입이 그 다음 기준이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직업선택 기준이 자아실현과 같은 내재적 및 장기적 발전 가능성 가치(보람, 적성, 발전 등)보다 외재적 및 단기적 가치(안정성, 수입)를

1)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층은 직업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도 어렵지만 원하는 길 또는 쉽지만 원하지 않는 길 중에 쉽지만 원하지 않는 길을 택하고자 하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외재적 가치의 비중이 증가하고 진로를 타협하고자 하는 현상은 IMF 사태와 2008년 경제 위기를 통과하며 점차 만연해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개인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인 시각이 반영된 직업가치는 향후 직업선택 이유 및 동기화되는 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직업을 구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장홍근, 2009). 이는 청년실업률이 높게 지속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청년들의 직업관과 구직행동 등 심리·행태적 차원에서 말미암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년 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시장의 구조 및 실업 정책 위주 이외의 방식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보인다(이상훈, 2014).

이외에도 한국 사회 청년들은 특정 직업에 대해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거나 평가 절하하는 인식이 만연한 직업 계층적 사회구조에 노출되어 있다. 직업은 사회적 지위, 생활수준 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 계층을 내포하는바 직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불평등의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 청년층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수저계급에 대한 논의는 청년실업이라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들이 몸소 체험하는 기회 및 분배의 차별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직장인들의 92%는 수저계급론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가운데 약 67%는 자신을 '흙수저'로 인식하고 있다(매일경제, 2017.01.28). 이들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귀속된 조건들이 자신의 직업을 포함한 생애 사건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을 흙수저로 규정하고 청년의 시기에 필요한 직업 탐색과 결정의 과업을 회의적으로 보거나 심지어 포기하는(N포세대)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고착화된 직업 계층의 구조에 대한 인식과 저항을 나타냄과 동시에 직업과 관련한 차별의 인식이 한국사회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3. 청년들의 직업 계층적 인식에 대한 접근

그렇다면 어떤 과정에서 직업의 계층적 인식이 한국 사회의 청년층에게 만연해진 것일까? 이 글에서는 직업 계층적 인식의 요인을 직업 위세와 직업 구조의 경직화로 설명하고자 한다. 직업 위세는 특정 직업에 대한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심화했으며, 직업 구조의 경직화는 이러한 직업의 계층이 대물림되면서 악화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가. 직업의 사회적 서열과 지위에 대한 인식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특정 직업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위치에 대한 존중 또는 무시를 반영한다²⁾. 예를 들어 직업군인 판사와 교수의 경우, 직업군이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하위 직업군의 경우, 하위 직업군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상위 직업군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이것이 직업위세가 가진 사회적 의미로서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계봉오, 황선재, 2017).

2)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 접근과 직업위세 접근으로 나뉜다.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득 수준이나 권력의 편중 등 객관적인 수치 등을 통해 직업의 지위를 파악하는 것인데 반면 직업 위세는 사회구성원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인식, 가치 등의 판단으로 정의된다(broom and selznick, 1973). 본고에서는 인식론적 접근으로 직업관을 조명하고자 하는 점과 이러한 접근이 사회경제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유홍준, 김월화, 2014)에서 직업 위세에 비중을 두어 논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래 직업은 그 자체로 지위를 포함하고 있기보다 역할의 분담과 노동의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분배 과정에서 한정된 재화가 분배와 보상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직업의 위계가 초래되었다고 보여진다(유홍준, 2000). 차등적 보상 체계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사람들은 나름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사회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 하는 중요한 일이 있으며 이 일에 경제적인 보상과 위신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일은 제한되어 있어 경쟁함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본다(Spaeth, 1979). 이것이 직업 위세에 대한 차이와 함께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으로 사료된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불평등은 경제적 차원,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직업위세는 바로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위세는 존경(shills, 1968)과도 연결되는 용어로서 자발적일 필요는 없지만 상위계층에 대하여 사람들이 공유하는 존중(respect)에 기반을 두고 있다(계봉오, 황선재, 2017). 즉, 직업위세는 한 사회의 위계구조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된 인식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직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지역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Treiman, 1977; Haller and Bills, 1979)³⁾, 국내에서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태룡(1983)은 Treiman의 가설과 함께 도덕적 가치가 직업 위세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Hope의 가설을 기반으로 수입, 사회적 지위, 경제 및 사회발전의 공헌 세 가지 측면에서 직업위세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입과 사회적 지위, 경제는 밀접한 상관이 있었으나 공헌도와 소득, 공헌도와 사회적 지위 관계는 미약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직업위세를 결정하는데 도덕적 가치보다 외적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유홍준, 김월화(2006)는 직업지위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 00년대의 직업순위 상관계수는 .9이상으로 시간이나 규범에 따라 직업의 위세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90년부터 2016년까지 직업위세 순위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계봉오, 황선재, 2017). 즉, 한국의 직업위세 구조는 시간이 흐름에도 상관없이 고정적이며, 직업의 도덕적 가치보다 소득과 지위와 같은 외재적 가치는 직업위세를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장홍근, 2012).

직업위세가 시사하는 바는 직업은 그 자체로 사회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평판을 내포하여 한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름하는 척도가 되고 있으며, 시공간적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의 분업을 목적으로 분화되었던 직업이 이제는 사회적 지위와 서열을 매기는 지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직업의 서열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직업위세의 서열화는 사회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들의 특정 직업에 대한 호불호가 과도하게 널려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나친 직업의 서열화는 대학교 진학 시 인기 학과로의 편중이나 공무원 등 특정 직업으로의 경쟁 지원 등의 현상을 낳을 뿐 아니라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적정 인력이 수급되지 못하여 특정 산업의 약화 및 와해로 이어지고 있다(김월화, 유홍준, 2013). 과도한 직업위세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타인의 직업을 인식하는 태도, 자신의 직업에 임하는 자세 등 바람직한 직업관 및 직업 정체성이 형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최근 들어 직업위세의 조작적 정의, 측정 등의 방법론적인 이슈에 따른 결과의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Hauser and Warren, 1997; Goyder, 2005). 이 글에서는 직업 인식과 관련하여 직업위세의 개념에 보다 초점을 두었으므로 언급을 제한하였다.

나. 직업 구조의 경직화에 대한 의식

암묵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직업은 더 나아가 구조적 측면에서 경직화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계층은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로 이어져 대물림되면서 직업 이동성이 약화됨으로 점차 굳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경직된 직업 구조를 마주하는 한국 사회 청년층들은 결국 제한적인 틀로 직업을 바라보게 되며, 이는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함에 있어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Blau and Duncan(1967)은 『미국의 직업구조』에서 부모에서 자녀로의 세대간 직업이동을 분석함에 있어 직업을 수직적 차원으로 접근한 바 있다. 직업을 위신, 수입, 권력 등의 통제의 위계에 따라 다르게 계층적으로 분류함으로써 구별하였고, 연구 결과 이러한 직업 구조는 부모에서 자녀로 대물림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화이트칼라와 농업직에 종사하는 개인은 세대간 이동성이 활발하지 않고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에 비하여 블루칼라 계급에 속한 개인은 해당 계층 내에서 활발히 이동이 일어나지만 계급 간의 이동은 활발하지 못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세대간 이동 과정에 있어 계층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교육의 역할을 제안하였는데, 가정배경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학교교육이 사회적 성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기회의 확대가 지위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할까? 차종천(1992; 1997)과 장상수(1996)는 지위획득모형의 경로계수를 추정한 결과, 아버지 직업보다는 학력이 본인의 학업에, 본인의 학업은 직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후 후속연구에서도 가족배경보다는 학력이 직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버지 교육과 가족배경의 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어 이러한 불평등이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영화, 김병관, 1999). 산업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여 계층 간 이동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부모의 지위세습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세대간 계층의 이전은 지속되고 있다(Corcoran, 1995; Piketty, 2000; 유홍준, 김기현, 2001).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Hout(1989: 315)는 ‘새로운 기회, 지속적인 불평등(new opportunities, old inequalities)’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직업구조의 경직화가 시사하는 바는 직업의 평판이 굳어진 것과 같이 직업의 대물림 또한 굳어져오면서 탐색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분절적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사회 청년층이 거론하는 수저계급론의 논의와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 세대의 직업이나 소득이 자녀인 청년 세대의 직업이나 소득을 나타낸다는 결과는 청년 세대가 직업을 탐색하거나 결정하기도 전에 가능성을 품을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제한시켜 패배감과 무기력감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다. 유리천장을 뚫지 못하는 청년들은 사회 속에서 자기 정체성과 직업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4. 기독교적 소명의식의 구속사적 의미

지금까지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직업의 계층적으로 인식하는 요인을 크게 직업 자체에 대한 사회적 서열과 지위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틀을 기반으로 형성된 직업 구조의 경직성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보았다. 직업을 바라보는 분절적인 이해의 틀은 직업 계급에 대한 논의,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관에 대한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통해 직업⁴⁾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일의 의미에 대한 성경적 접근

직업이라는 의미가 있기 이전,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 태초에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공간에 빛이 있도록 하여 빛과 어둠의 경계를 나누셨다. 이후 6일 동안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땅과 바다의 경계를 두었고, 물 위에 각종 식물과 채소를 내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으며, 뒤이어 동물과 사람,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빚으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께서 몸소 일의 본을 보여주심은 우리 또한 일하는 피조물이자 동역자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일을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은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심으로 일을 부여하신다. 이것은 인간이 처음으로 받은 명령이자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청지기적 사명임을 명시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마치는데 있어 사람을 초청하시어 그 작업에 참여하도록 의도하신 것이다(김재영, 1987).

1981년 교황 칙서에서는 노동과 일은 인간이 인격의 주체로서 소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활동임을 지지하고 있다.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다...(중략)...그러므로 인간은 노동의 주체가 된다” 인간이 인간됨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기에 고유하게 부여된 인격체로서의 사명인 다스림과 경작함, 지키게 함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재영, 1989).

창세기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작하다(창 2:15)’라는 단어로 사용된 아바드(abadh)가 예배드리는 행위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용어라는 데서 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임현만, 2009). 아바드는 본래 “하다”, “만들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용어는 구약에 걸쳐 “섬기다” 또는 “봉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레 23:7; 민 3:1; 수 22:27).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사명인 다스림과 경작함, 지키게 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해석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나. 왜곡된 직업관의 형성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곧 뱀으로 둔갑한 악마의 교활한 꾀임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였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원형이 타락하고 왜곡된 것과 같이,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층들이 지니고 있는 차별적이고 계층적인 직업에 대한 인식은 성경이 말하는 일의 의미와는 대조적인, 왜곡되고 절망적인 현실로 다가온다. 직업위세의 평가와 직업이동의 경직성은 탈근대화된 국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나, 특히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관료주의적 체제가 자연스럽게 내려온 한국사회에서는 청년층이 인식하는 구조적 요인이 더욱 강하

4) 직업에 대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노동에 대한 논의를 함께 포함하여 기술한다.

게 느껴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것을 왜곡된 직업관으로 정의하고 보다 자세하게 외재적 가치의 중시 경향, 노동의 가치에 대한 차별적 접근, 직업 위세의 계층적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직업 또는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직업의 외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단기간 내에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우리나라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제한적인 자원 및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부추겼다. 이에 합리적 사고와 생산적 행위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노동시장의 중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예로부터 이어져 온 관료주의적 틀 안에서 직업에 대한 인식은 일을 수행한다는 행위 자체가 지니는 일에 대한 문화적·역사적 맥락보다도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중시하는 사회를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김재영, 1987). 이와 함께 IMF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며 공무원, 교사 등과 같은 고용이 안정적인 직업에 선호가 편중되면서(방하남, 김기현, 2011) 청년층의 대부분은 보수, 지위, 안정성 등의 외재적 가치를 헌신이나 기여도 등의 내재적 가치보다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덧붙여 청년층은 직업관에 대한 왜곡된 사고는 일 또는 노동의 가치를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청년들은 대가에 따라 또는 생산성에 따라 노동의 가치를 다르게 부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진짜” 일은 임금이 있는 주요 노동으로, 상심한 자를 위로하거나 환자를 심방하는 일과 같은 활동은 보수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가적인 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는 파머 J. 파머가 언급하였던, 일과 창조성과 보살핌의 영역과 맞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노동’이라고 하면, 생산의 대가를 얻고, 생산성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창조성과 보살핌에 해당되는 수많은 활동들을 평가 절하하게 된다. 여성이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경제적 가치가 매겨지지 않으므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그러한 풍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일은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판단에서 진짜 “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실상은 그러한 일이 임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차원의 영역이라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직업을 계층적으로 평가하는 사고 역시 청년층이 가진 왜곡된 직업관 중의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다루었던 수저계급론 논의는 직업이 수직적으로 계층화되어 있으면서 그와 함께 직업이 이동하지 않는 경직화된 사회 구조를 인식하는 담론으로써, 경직화되어 가는 직업 구조에 대한 청년층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실제로 직업의 계층화가 심화되고 이동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그 사회의 청년으로서 체감되는 사회구조의 고착은 좌절감을 낳고 있다. 이에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청년 실업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청년층이 인식하는 직업관은 성경이 언급하는 직업 본래의 의미와 목적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왜곡되고 타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곡되고 타락한 직업관을 가졌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장면을 상기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베어 물었다. 그 결과 그들은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았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자 하였다. 그들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은지를 분별하려는 시도는 결국 그들을 정죄하였고, 그러한 자신에 스스로 정체성을 부여함으로 끝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었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

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다. 흠에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다시 흠으로 돌아갈 인생으로, 노역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진 죄인으로 살게 되었다.

다. 부르심과 정체성의 회복

왜곡되고 타락한 직업관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여기서는 한국 청년층이 가진 왜곡된 직업관 회복의 가능성을 중세개혁자 루터와 칼뱅이 언급했던 소명의식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일차적 소명을 통한 이차적 소명의 회복으로, 이차적 소명의 회복은 “나를 부르심”을 의미하는 자아 정체성의 회복과 “그 일에 부르심”을 의미하는 직업정체성의 회복으로 보고 부르심과 정체성의 회복을 논한다.

1) 1차 소명을 통한 2차 소명의 회복

중세 개혁자 루터는 영혼의 구원이 인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듯이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교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됨을 말한다. 즉,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의 목적으로 다시금 정체성이 회복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 가죽을 죽이셨듯이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새롭게 규정하고 해석함으로써 일에 대한 창조 원리를 다시 회복하며,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달라진다.

우리는 먼저 일을 하도록(doing) 부르심을 받기 전에, 존재하도록(being)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한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롬1:6) 일차적 소명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그의 대속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죄인된 자신과 고역과 저주 가운데 놓인 노동의 속성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창조 질서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엡1:18)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함께 부르심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며, 우리에게 주신 직업에 대한 목적을 깨닫게 하심으로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루터가 언급하였듯 우리는 그리스도가 해방한 자유 안에 서서 해방된 자로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rakelmann, 2014).

2) 자아 정체성의 회복: 나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먼저 자신에 대한 부르심을 회복시킨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옳고 그

른지, 무엇이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은지를 알게 되어 숨기고자 했던 부끄러움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으로 우리 자신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해석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청년은 그러한 속도로 자신을 변화시켜 가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현대 청년의 사회정체성은 모호하고 복잡한데, 이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불안 속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탐색과 동시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분리된 계급적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과 과포화된 노동 시장의 수요-공급 구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바람직한 관점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회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기와 성숙기 사이의 청년기에 성경적 관점에서 자아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갖게되는 과정이다(엄옥순, 2017).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해하고, 그분의 피조물로 자신의 정의하는 것, 자신의 이웃과 교체하며 선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이해함으로 올바른 세계관을 정립하여 존재론적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다.

성경적 관점의 자아정체성 회복은 곧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회복(창 1:26)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회복(고전3:16)을 가능하게 한다. 청년으로서 갖게 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은 곧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사43:1)”는 말씀에 의해 일치되고 분명해짐을 알게 된다. 마치 모세를 부르셨을 때(출3:4), 모세가 자신의 존재와 소명을 깨달았던 것처럼 말이다.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로,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리로 살아갈 것을 명확히 알려준다.

3) 직업 정체성의 회복: 그 일에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직업, 즉 일에 대한 부르심을 회복시킨다. 소출을 얻기 위해 평생 수고하고 짊어져야했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오르심으로 그와 함께 우리는 그의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섬을 얻게 하여 고통으로 느꼈던 일과 일터를 새롭게 정의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다.

Jeffrey J. Arnett은 청년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일’임을 주장하였다. 삶에서 일과 신앙이 일치되는 청년 세대는 더 큰 목적의식을 향해 나아가며 직업의 귀천을 따지기보다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동기를 부여한다(엄옥순, 2017). 직업에 대한 부르심은 직업의 보수와 지위, 안정정보보다도 자신의 적성과 취미, 직업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직장과 직무에 드러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이루게 하신다.

직업정체성은 청년들에게 있어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이영자, 2004). 개인의 삶은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며, 구직, 이직, 사직 등의 직업적 변화는 청년기 이후 장년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에 대한 일체감은 자신을 직업과 한 몸체라고 느끼도록 하여 직업이 직면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직업이 인식되는 감정을 자신을 향한 감정으로 등치시키도록 한다(유홍준, 정태인, 김월화, 2017).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직업을 통해 표현되고 다듬어져간다는 점에서 직업 정체성은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성경적 관점의 직업정체성 회복은 곧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비전을 형성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은 곧 “그분이 이 일에 부르셨다(엡4:1)”는 말씀에 의해 명료해지고 구체화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얼굴을 가렸으나,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밝히 보이셨다. 그것이 모세가 감당할 이차적 소명이었으며, 시대적 사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할, 모세가 짊어질 십자가였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직업으로의 ‘부르심’의 소명의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엇보다 일차적인 소명을 통해 이차적 소명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혹자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직업으로의 ‘부르심’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중세개혁자들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낼 것을 명하고 있다(20, 24절). 이를 사회의 특별한 직업이나 자리를 지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개별 유형의 ‘노동’에 초점을 두어 특정 ‘직업’을 고수하도록 함으로 기독교적 소명의 의미는 사회질서 앞에서 보수적이고 수동적이며 묵종적으로 수축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김재영, 1987; 임헌만, 2009). 이는 직업의 통시적 다원성을 갖는 산업 정보 사회에서 일평생 단 하나의 직업을 가지라는 해석은 시대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우병훈(2018)은 루터가 직업 간 이동을 반대했던 주요 동기는 사회 질서의 고착화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 직업의 평등성, 성직우월주의를 거부하기 위함이었음을 주장한다. 루터는 교육을 통하여 직업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사회적 신분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직업 소명설의 불유동성과 유동성을 통해 중세사회 성직자 중심의 위계질서와 운명론적 사회 구성을 거부하고자 하였다.

본문으로 돌아가 바울이 언급한 부르심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부르심에 대한 자유를 명시한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개인적 상태로서의 이차적 소명이라기보다 일차적 소명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에 그대로 거하라는 의미로써,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며, 가능하다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여기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것을 직업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옳지 않는 해석이다. 바울은 누구든지, 어떠하든지 구원 가운데 오직 주 안에서 자유하거나 매여 있음을 명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부르심 안에 거할 것을 권고한다.

직업과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은 다른 서신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바울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며,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언급하였다(빌2:13).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good purpose)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신의 직업을 두고 새로 직업을 탐색하거나 결정하는 것 또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빌 4:12-13). 이와 같이 기독교적 소명이 사회질서를 보수적이고 수동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해석은 성경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해석으로 보이며, 어떤 소명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해법과 기독교적 직업관의 회복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사회 청년층들이 인식하는 왜곡된 직업관으로 인한 결과와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는 직업관의 창조 원형과 이와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모습,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일차적 부르심으로 인한 자아 정체성 및 직업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으로 인한 직업관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과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가. 성(聖)과 속(俗)의 조화로운 추구

한국 사회의 청년층에게 다시 한 번 필요한 것이 바로 성과 속의 조화로운 추구라고 볼 수 있다. 욕신과 영혼은 크게 일과 쉼, 행동과 관조, 성과 속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행동적 삶보다 관조적 삶인 여가와 무위도식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반면, 근대 산업화 사회에서는 노동과 생산, 행동과 창출 등 가시적 성과가 경쟁력 있게 여겨지고 있다. 시대에 따라 욕과 영을 대하는 풍토의 다양한 측면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욕과 영의 조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욕과 영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서로 별개이면서도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욕과 영의 경계를 무너뜨리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육체는 저주받은 몸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너희 자신’을 일컬을 때 “너희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로마서에 언급된 욕과 영의 싸움은 결코 몸과 영혼 사이의 전쟁이 아닌, 순종과 불순종의 욕구 사이의 전쟁일 것이다(김재영, 1987).

직업이나 노동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도 직업을 세속적 직업이나 거룩한 직업에 차별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임금 노동이나 비임금 노동을 차등적으로 대우하거나 생산적인 일과 비생산적인 일을 무차별하게 가르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노동이든지 어떠한 직업이든지 자신의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며, 세상과 밀착되면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행동하면서도 정적으로 관조할 수 있어야 하며, 일과 창의성과 보살핌의 균형이 필요하다.

나. 청지기의 사명과 자세

마태복음 25장 중반부에서는 타국에 있을 동안 자기 소유를 맡기는 주인의 이야기가 언급된다(14-30). 주인은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며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 결산하게 된다.

이 비유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누가 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의 차이이다. 두 달란트 받은 자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그들이 받은 만큼 일하고 거두어 소출을 남겼으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와 성품을 오해하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24)라고 말한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청지기들이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보다 그들이 주인의 의도를 알고 이행했는가 태도이며, 이것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바칠 소출로 나타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명한다(3:23). 주인이 없을 때에도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임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청지기로서 직업은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며, 다음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비되고 단련되는 무대이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청지기로서 그분께서 기업의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인의 의도와 성품을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주님은 누구든지 택하셨고, 누구든지 부르고 계시며, 누구든지 맡기고자 하시며, 기대하시며 기업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며(렘 33:2),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날을 두려움과 기대로 준비하며 일하는 것이다

다. 수저 계급과 하나님의 형상

한국 사회에 등장한 수저계급론은 사회적 지위의 지표로 여겨지는 직업에 따른 신분과 계급이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현대판 중세시대와 같이 귀속적 요인으로 구분된 계급에 따라 자신을 인식하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가정환경에 따라, 직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평가받고 대우받는 현실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모습이 아니다. 성경은 청년을 일컬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그 마음 안에 두게 하시는(시119:7-9), 곤고한 날이 이르기 이전 창조주를 기억하기를 요구하시는(전12:1), 구별된 나실인으로 세우시는(암2:11) 대상임을 명시한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새벽이슬과 같은(시110:3) 청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자되심을 주장할 수 있다(렘 3:4). 그것이 창조주가 정의하는 청년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에 따라 각각의 부르신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청년이다. 모든 역할이 하나를 이룸에 있어 빠질 수 없으며, 각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될 때 그 몸은 자라나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상의 풍조가 규정하는 청년의 모습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청년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자신을 향한 부르심과 직업을 향한 부르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라. 하늘의 소망을 담은 일의 동기

직업관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이 일하는 동기를 점검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 일과 직업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에 대한 동기가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욕심인지, 순종으로부터 오는 소망인지는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가르쳤다(롬 12:1). 그 방법 중 하나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심계명 가운데 제 2계명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는 것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는 것은 직업의 보수와 지위, 안정성보다도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각 직업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하게 한다. 직업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동기의 점검은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기에 있어 갖추어야 할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기를 점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FWIA(2017)에 따르면, 새로운 동기로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새로운 관점으로 일하기를 요구한다. 첫째, 하나님을 새로운 상사로 모심으로 다시 오실 주인의 날을 준비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일하는 것, 둘째, 자신의 일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동기와 사명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의도와 성품이 반영된 원칙으로 주어진 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가 자신을 채우기 위한 욕심인지, 하늘이 주신 소망인지에 따라 그 직업과 직무는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일하는 동기에 따라 그 일이 고역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일이 해방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동기를 취할 때 자신을 부르심과 그 일에 부르심은 더 큰 목적의식을 향하여 추진하기를 지속할 것이다.

마. 하나님 나라와 회복적 정의

일차적 소명을 통한 이차적 소명의 회복은, 이차적 소명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소망하게 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화로 인한 부르심에서 시작된다. 그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의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고백하는 부르심이다. 그러한 부르심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부르심’(자기 정체성)과 ‘그 일에 부르심’(직업 정체성)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부르심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루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완수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사랑의 일이나 기독교적 소명의 일도 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우병훈, 2018).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차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적 소명은, 직업과 일을 행위로 인한 칭의의 수단이 아닌 은혜의 선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루터는 직업이나 일은 자기 자랑이나 과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대한 보답을 삶의 예배로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닌, 오직 그분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른 응답이다(딤후1:9). 그러므로 끊임없는 행위 자체 안에서 자신을 실현해야 한다는 압박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업적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는 개인이 무엇이 되기 전에 이미 인격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Brakelmann, 2014).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바로 자신을 향한 관점, 직업을 향한 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자신을 부르심, 그리고 그 일에 부르심 가운데 자신을 발견할 때, 각 마디는 함께 자라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이웃 안에서, 신앙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통한 이웃 안에서 사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루터와 칼뱅이 말하는 소명의식은 바로 왜곡된 직업관으로 고통 받는 한국 사회의 청년들에게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계봉오, 황선재. (2016). 한국의 세대간 사회이동: 출생 코호트 및 성별 비교. 한국인구학, 39(3), 1-28.
- 계봉오, 황선재. (2017). 한국의 직업위세 평가의 변화: 1990-2016. 통계연구, 22(3), 121-140.
- 김광연. (2017). 유전자 선별 시대에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한 선교적 과제-기독교평등공동체 구현을 위한 선교를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39, 61-86.
- 김기홍 (1999). 한국인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영화, 김병관. (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교육학연구, 37(1), 155-172.
- 김월화, 유홍준. (2013). 한국의 직업위세 변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81-193.
- 김재영 편저. (1989). 직업과 소명.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노혜진. (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39(4), 109-134.
- 방하남, 김기현, 신인철. (2011). 한국의 직업구조 변화와 직업이동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소태영. (2016). '수저계급론'논쟁의 중심에 선 한국 청년들의 열등감 (inferiority) 극복을 위한 영성교육. 기독교교육정보, 50, 119-153.
- 신영은. (2017.01.28.). 직장인 92% “수저계급론은 현실” 매일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1/17559/>
- 양춘. (2000). 한국 사회, 계층 구조와 동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 엄옥순. (2017) 기독교 청년의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43, 9-43
- 우병훈. (2018). 루터의 소명론 및 직업윤리와 그 현대적 의의. 한국개혁신학, 57, 72-132.
- 유홍준, 김월화. (2002). 한국사회의 직업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 5(2).
- 유홍준, 김월화. (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한국사회학, 40(6), 153-186.
- 유홍준, 김월화. (2014). 한국형 직업위세 측정 척도 개발. 조사연구, 15(3), 1-29.
- 유홍준, 정대인, 김월화. (2017). 한국인의 직업정체성과 직업위세. 한국사회, 18(1), 77-103. 임연, 박천수, 최지희. (2010).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홍준. (2000). 직업사회학.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이상훈. (2014). 청년 고(高)실업시대와 기독교 직업윤리 교육. 기독교사회윤리, 29, 377-413.
- 이영자. (2004). 여성의 직업활동과 정체성, 성평등연구, 8, 85-119.
- 임현만. (2009). 일차적 소명의 관점으로 보는 이차적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기독교상담. 복음과 상담, 13, 37-69.
- 장상수. (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한국사회학, 34(FAL), 671-708.
- 장홍근. (2012). 직업 위세에 대한 인식의 국제 비교,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7:1, 15-32
- 장홍근. (2009). 한국 대학생의 경제 및 직업 가치관과 직업윤리. 인간연구, (16), 7-40.
- 주희진, 주효진. (2017).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들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연구: 청년패널조사 (Youth Panel)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2), 51-74.
- 차종천. (1992). 사회계층의 구조와 과정.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황일청 편. 나남.
- 차종천. (1997). 직업구조와 분배의 불평등.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석현호 편. 나남 (pp. 71-140).
- 채창균, 민주홍, 양정승, 정지운. (2015). 청년 니트 (NEET) 족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민재인재포럼 발표.

- 최용환. (2015). OECD 국가의 ‘청년 니트 (NEET)’유입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4), 85-115.
- 김경동, 최태룡. (1983).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계급구분.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3), 1-30.
- 황선재, 계봉오. (2018).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41(4), 65-88.
- Bose, C. E., & Rossi, P. H. (1983). Gender and jobs: Prestige standings of occupations as affected by gend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16-330.
- Brakelmann, G. (2014). 기독교 노동윤리(백용기 역). 서울: 한들출판사. (원서출판 2004).
- Corcoran, M. (1995). Rags to rags: Poverty and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1(1), 237-267.
- FWIA. (2017). 일: 왜 일해야 하는 걸까요? 서울: 순출판사.
- Goyder, J. (2005). The dynamics of occupational prestige: 1975-2000. *Canadian Review of Sociology/Revue canadienne de sociologie*, 42(1), 1-23.
- Hout, M. (1989). Following in father's footsteps: Social mobility in Ire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 Jenks, C., Perman, I., & Rainwater, L. (1988). What makes a good job.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1322-1357.
- Nakao, K., & Treas, J. (1994). Updating occupational prestige and socioeconomic scores: How the new measures measure up. *Sociological methodology*, 1-72.
- Piketty, T. (2000). Theories of persistent inequal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1, 429-476.
- Dunn R. R. & Sundene, L. J. (2013). 이머징 세대를 위한 영적 멘토링(정은심 역). 서울: CLC (원서출판 2012)
- Shils, E. A. (1968). The concept and function of ideology. Crowell Collier and Macmillan.
- Spaeth, J. L. (1979). Vertical differentiation among occup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6-762.
- Treiman, D. J. (1977). Occupational presti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Elsevier.